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 본격화

전주시 진북동 치매안심마을 디지털타운으로 조성… 첨단 기술 활용 촘촘한 치매안심망 구축

전주시 진북동 치매안심마을이 IoT(사물인터넷)과 지능형 CCTV,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매환자를 촘촘하게 돌보는 ‘치매안심 디지털타운’으로 거듭나게 됐다.

전주시는 공백 없는 품질한 치매안심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120가구가 대상이며 국비 8억여 원 등 총 1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과 스마트센서 등의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인구감소와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의 각종 협안과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주의 4곳 치매안심마을을 중 먼저 진북동 치매안심마을에 적용할 예정이다. 진북동은 구도심 주택단지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진북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로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이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대상 가구의 신청을 받

아 치매등록가구 내에 IoT센서를 설치해 치매환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회하는 치매환자의 이동 경로

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도 지능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검강·안전 케어를 서비스를 통해 말벗 대화와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안심마을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8기 10대 역점 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제1의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김종태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가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예방부터 치료 및 돌봄까지 통합관리해 치매 환자나 가족이 걱정 없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우아1동 통우회, 여름맞이 꽃묘 식재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통우회(회장 김영미)는 지난 3월 봄꽃 식재에 이어 이달 24일에는 싱그러운 여름 청취를 전달하고자 여름맞이 꽃묘 식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우아1동 통우회원 23명과 직원들은 뜨거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관내 환경정비가 필요한 우아 제5호 어린이 공원, 첫미중길 등을 중심으로 제라늄, 알리섬, 페츄니아, 아제리팀 등 여름 꽃묘 1,500본 식재에 힘썼다.

김영미 우아1동 통우회장은 “정성스럽게 식재한 꽃을 통해 우아1동 시민과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페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정하 우아1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름꽃 식재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통우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더운 여름에도 활짝 피는 여름꽃을 보고 잠깐이라도 더위를 잊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우아1동 통장협의회는 매년 봄, 여름, 가을꽃을 심고 수시로 제초 작업을 하는 등 꽤적하고 아름다운 관내 거리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호우 대비 양수기 점검·교육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비상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완산구 관내 주민센터 재난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작동 여부 등 점검하고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구와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94여 대에 대한 시험가동 및 자체점검을 점검을 한 바 있으며, 점검 결과 수리를 요하는 장비에 대한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하는 등 호우 대비 양수기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고,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전주시민에게 귀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보통시민상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전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채규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보통시민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며 “영광스런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신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하고, 보다 살기 좋은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 지른 60대, 구속 송치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붙인 종이백을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화 또는 질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세월호분향소는 이미 전기가 끊겼고, 촛불을 사용하는 제단에는 탄 흔적이 없기 때 문이다. 소방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결과 A씨가 쓰레기 더미 속 종이백을 가져와 불을 붙여 전막으로 가져다 놓는 장면을 포착하고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세월호분향소 화재 이후 인근을 배회한 A씨를 추적, 20일 오후 4시30분께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이 특정 종교에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천마이 그 종교가 활용하는 장소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광장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를 빛낸 ‘모범시민상’ 수상자 선정

김영숙·박승택·박창석·이연숙·전석봉 5명… 6월 10일 전주시민의 날 행사서 시상식 개최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전주를 빛낸 시민들이 ‘2024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자는 △김

영숙 님(진북동)



김영숙



박승택



박창석



이연숙



전석봉
님(금암2동) △박창석 님(삼천2동) △이연숙

전주승화원 직원들, 한복 차려입고 이용객 맞이

27일 전주시립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최근 이용객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근무복을 생활한복으로 정했다.

오는 7월에는 매점과 식당, 카페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건물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페적하게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승화원은 지난해 7월 최신식의 화장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도시인 전주의 특색을 살려 직원들이 정장 등을 입는 다른

시도의 달리 근무복을 생활한복으로 정했다.

오는 7월에는 매점과 식당, 카페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건물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페적하게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승화원은 지난해 7월 최신식의



27일 전주시립공단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최근 이용객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근무복을 생활한복으로 통일했다.

화장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